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차세대 인문사회학 육성 프로그램에 의한 해외파견
귀국 보고

최종 보고서 제출일

2013년 4월 1일

파견생 기본 정보

- 성명 : 정유리
- 소속 :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 박사과정 단위취득만기퇴학(수료)
- 파견 형태 : 2011년도 겨울 개인파견 PD

연구 테마

장송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 최근 한국에서 보이는 변화를 중심으로

파견지에서의 활동

(1) 파견지의 기본 정보

- 국명 : 한국
- 도시명 : 서울
- 접촉한 연구기관명 :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접촉한 주요 연구자명 : 유명대 교수님

(2) 파견 기간

- 출발일 : 2012년 4월 1일
- 귀국일 : 2013년 3월 26일

본 프로그램에 의한 연구기간: 2012년 4월 1일~2012년 12월 31일 (총일수 : 275일)

사비에 의한 기간 연장 : 2013년 1월 1일~2013년 3월 25일

연구의 주된 성과

(1) 당초 계획의 개요

① 자료의 수집과 정독

서적, 논문, 매스미디어, 정부 및 지자체 간행자료, 관련업계의 업계지 및 홍보자료 등을 수집, 정독하여 장송을 둘러싼 한국의 담론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② 대학의 장례관련학과나 장례지도사 양성 과정, 상조회사, 장례식장에서의 참여 관찰을 통해, 장례지도사, 상조회사, 장례식장의 등장이 장송의 변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③장송의례의 전과정에 대한 참여 관찰

지금까지의 필드워크는 주로 장법과 묘지의 변화를 포착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화장 시설 및 안치시설에서의 조사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죽음의 준비로부터 장례식, 추모의례에 이르기까지 장송의례의 전과정을 연속적으로 관찰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자 한다.

④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있어 장송의 변용에 관한 필드워크

지금까지는 화장률의 급증, 장법과 묘지의 다양화, 새로운 추모행위의 등장 등 장송의 변화가 두드러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해왔으나,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장송의 현황을 함께 파악함으로써, 대도시로부터 시작된 장송의 변화가 지방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한 지방의 제주체들은 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실제 달성한 성과

①자료의 수집, 정독, 분석

장송의 급변과 더불어 나타난 여러 부작용과 그에 대한 우려를 읽을 수 있다. 상조회사, 장례식장, 안치시설(납골시설, 자연장시설)의 유착과 폭리, 정부의 정책 부재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연장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상품화의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다.

②대학의 장례관련학과와 장례지도사 양성 과정, 상조회사, 장례식장에서의 인터뷰, 앙케이트, 참여 관찰

서울의 한 대학의 FBA (Funeral Business Acadeemy) 과정에 등록해 반년 동안 수강했다. 이 과정은 이미 장례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무를 1 년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에 있는 한 대학의 장례지도과(학부과정)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수, 학생, 졸업생들과 인터뷰를 했다.

상조회사의 경우, 업계 1, 2 위를 다투는 두 개 상조회사의 지점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터뷰하고, 그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조자의 신분으로 참여 관찰했다. 한편 2012년 12월에 열린 'MBC 웰다잉 페어'에서는 각 상조회사의 부스를 찾아 고객으로서 상담을 받고 상품의 내용 및 영업 방식 등을 비교 관찰했다.

장례식장은 대형병원의 부속 장례식장 네 곳, 일반 장례식장 세 곳을 견학하고 시설, 운용, 현황 등을 비교했다.

도시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장례가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며 그 중 70% 이상이 상조회사에 소속된 장례지도사에 의해 진행된다고 한다. 장례에 있어 유족과 조문객의

역할과 부담이 줄어 확실히 편해진 면도 있겠지만, 유족이 고인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줄었고 낯선 타인에게 의례의 세부를 일임한 채 지시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상조회사의 매뉴얼 대로 진행되는 장례식은 지역이나 가정에 따른 독자성을 잃어버린 채 장례상품의 가격에 맞춰 일률적으로 진행된다. 의례의 세부 내용이나 의미 등의 정보는 유족과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일회성 의 이벤트와 같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장송에 대한 정보는 업계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며 상품화에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③ 장송의례의 전과정에 대한 참여 관찰

장례지도사의 보조자로서 세 건의 장례식에 참가했다. 이 경우는 장송의례의 전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상조회사, 장의사,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유족의 관계 및 역할 분담, 실제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지인 두 명의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한 건은 조문객으로서, 다른 한 건은 조연자로서 참석하게 되었다. 이 때는 유족이 어떻게 고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장례식과 추모의례를 진행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지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④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있어 장송의 변용에 관한 필드워크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화장률이 낮은 충청남도(금산군, 홍성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낮은 화장률의 요인을 규명하려 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는 진작부터 해체되기 시작한 지역공동체의 유대와 규제, 유교적 규범이 최근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매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장송의례가 현재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설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개발 붐이 일어나고 대기업이 최첨단 화장시설을 건설, 기증함으로써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도시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한 장송의 변용이 한발 늦게 지방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지역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내적, 외적 변화에 의해 장송에도 변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앞으로의 연구 전망

장기간에 걸친 이번 필드워크를 통해, 한국에 있어 장송의 변용의 전체상이 조금은 잡히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다.

단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의 장송의 변용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사한 충청남도의 사례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전라도나 경상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더 보충하여 도시부의 사례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둬온 조사들의 성과를 보다 큰 틀 속에서 종합 정리하여, 그를

바탕으로 박사논문을 완성시키고자 한다.